

리그서 손꼽는 빠른 발

벼락 같은 스윙 스피드

신종길의 재발견



만년 유망주서 당당한 '3할타자'

신종길, 신종길을 넘어서라.

KIA의 2013시즌은 실패로 끝났다. 2년 연속 가을 잔치에서 탈락했고 부상 악몽은 올해도 계속됐다. 이렇다할 소식이 없었던 시즌이지만 '신종길의 재발견'은 그나마 위안이다.

리그에서도 손 꼽는 빠른 발, 벼락같은 배트 스피드, 프로야구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지만 더딘 성장세로 '만년 유망주'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매년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끝났지만 올 시즌은 달랐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가량의 공백이 있었던 신종길은 지난 10일 SK와의 군산 홈경기에서 5타석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규정타석을 채웠다. 규정타석 진입과 함께 신종길은 바로 타격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율 0.322, 4홈런, 43타점, 22도루(10일 현재). 김선빈(0.300)이 누굴 미세 골질로 규정타석을 채워질 못할 것으로 보여 KIA 유일의 3할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쉬운 대로 팀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성적, 개인 최고의 성적이기도 하다. 2002년 롯데에서 데뷔한 뒤 2003년 40경기(타율 0.284)를 뛰었던 신종길은 한화로 트레이드

규정 타석 채워 타율 0.322

KIA의 대표 호랑이로 성장

'기울잔치' 탈락... 그나마 위안

던 2004년에는 49경기에서 0.224의 타율을 만드는데 그쳤다. 홈런은 하나. 프로 데뷔 첫 홈런이었던 이 홈런은 프로야구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하는 한방이었다.

이후 부상과 군복무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신종길은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2009년 다시 1군에 진입했다. 그러나 성적은 신통치 못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불타던 방망이가 시즌이 시작되면 식어버리는 패턴의 연속이었다. 지난해에도 선동열 감독이 무조건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계속된 부진으로 2군으로 추락했고 44경기에서 0.157의 타율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달랐다. 치열했던 외야 경쟁에서 밀려왔던 신종길은 갑작스런 김주찬의 부상으로 얻은 기회에서 불꽃 타격을 선보이며 KIA의 초반 선두질주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부상으로 잠시 멈췄던 질주, 부상으로 복귀한 6월 12경기에서 0.385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예년 같지 않은 꾸준함으로 타선

의 핵이 됐다.

KIA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지만 아직 길이가 멀다. 10일 신종길은 아쉬운 수비로 고개를 숙였다. 1회 2사 만루에서 김강민이 플라이 타구를 놓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실수를 했다. 타석에서도 두 차례 삼진을 당하는 등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자기의 야구를 찾은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규정 타석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타석에서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였다. 수비를 할 때도 공 하나하나에 무빙을 하면서 대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며 "좋은 선수지만 조금 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공·수에서 부진하며 팀의 역전패의 주역 아닌 주역이 된 신종길에게도 올 시즌은 가능성을 봤지만 아쉬움도 크게 남는 해다.

신종길은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 성적에 대해 욕심이 나기도 했는데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아쉽다"고 밝혔다.

신종길이 남은 시즌 동안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컵스 경기.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투·타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임창용(시카고 컵스)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두 번째 등판에서 1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추신수(신시내티 레즈)는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임창용-추신수 맞대결 다음기회에

임 8회 등판 제구력 불안 아슬아슬 무실점 투 추 7게임 연속 안타행진 불구 7회 수비때 교체

광주출신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37·시카고 컵스)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두 번째 무대에서 1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임창용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9-1로 앞선 8회말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몸에 맞는 공을 하나씩 내줬지만 위기를 넘기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8일 메이저리그 첫 등판에서도 위기를 넘기고 0.2이닝 무실점으로 성큼한 임창용의 평균자책점은 '0'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꿈의 무대'에 섰다는 긴장

감을 떨치지 못한 듯 두 경기째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노출해 아쉬움을 남겼다.

컵스 선발 에드윈 잭슨에 이어 마운드를 물려받은 임창용은 세자르 이스투리스에게 던진 초구부터 다소 높게 들어가는 등 제구가 들쭉날쭉했다. 다행히 3루수 팡블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았지만, 다음 타자에게 곧바로 몸에 맞는 공을 내주더니 허비에르의 파울의 타구가 2루수 글러브에 맞고 빠져나가는 행운의 안타가 되는 불운까지 겹쳤다.

급격히 흔들린 임창용은 폭투까지 저질러 1사 2, 3루에 몰렸다. 테릭 로빈슨을 얇은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해 한숨을 돌리는가 했

지만, 바로 볼넷을 허용해 2사 만루에 몰렸다. 임창용은 잭 코자트를 3루수 팡블로 잡아내 헛된 이닝을 마무리했다.

6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공 19개를 던진 임창용의 직구는 최고시속 151km로 전성기에 못 미쳤다. 특히 제구가 불안해 상대 타자들과 어렵게 대결해야 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31)는 이날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번 타자 겸중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5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부터 7경기째 꾸준한 안타를 때리고 있다. 시즌 타율은 0.291을 유지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투·타 맞대결은 추신수가 0-7로 뒤져 전세가 기울 7회초 수비 때 빌리 해밀턴과 교체되고 임창용이 8회말 마운드에 오른 탓에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 덕아웃 말·말·말

▲저기 내일 선발이네=선동열 감독, 지난 10일 좌완 박경태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자, 리빌딩 작업에 들어간 KIA는 앞으로 새로운 선발진 구성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태에 이어 13일에는 송은범이 선발진에 합류한다.

▲투구수 상관없이 마음껏=선동열 감독, 시즌 첫 선발로 나서게 될 송은범의 투구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투구수 제한 없이 능력에 따라서 던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일이 너무 길었어요=1군에 등록된 투수 신창호, 엔트리가 말소된 뒤 딱 10일 만에 다시 등록됐다.

1군 등록한 신창호 투수 "10일이 너무 길어요"

▲1군에서는 하루가 2일이야=신창호의 얘기를 들은 이범호, 1군에서의 하루는 이를 같이 갈다.

▲운이 좋았어요=앞선 두산전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투수 임준섭,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가는 등 운이 따라서 좋은 기록을 남겼다.

▲어설편게 죽으면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요=포수 백용환,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신 있게 스윙을 하려고 한다.

▲아직은 눈 안 떴어=이순철 수석코치, 신종길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윤석민 보러왔나?=선동열 감독, 덕아웃에 인사를 하러 온 메이저리거 미네소타双城팀 스카우트를 보고.

▲감독님 복귀하십시요=인사를 받은 미네소타 스카우트, 자료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어디 가나=최향남, 사복차림의 투수 임준섭을 보고, 12일 LG전 선발인 임준섭은 선수단에 앞서 먼저 잠실로 이동했다.

▲기계에서 변화구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2000년 시드니 올림픽 얘기를 하던 박재홍 해설위원,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벤시츠가 던진 커브를 보고 놀랐다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크로아티아의 친선 경기. 0-2로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이용의 크로스를 이근호가 헤딩슛으로 연결해 만회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진화하려면 원톱만 문제가 아니다

크로아티아전 집중력 부족·수비 허술... 헤딩으로만 2골 헌납 내달 12일 브라질·15일 말리 잇단 평가전...해법 찾는지 관심

홍명보 호(號)가 1.5군 전력으로 나선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세계랭킹 8위)와 7개월 만에 치른 리턴 매치에서 헤딩으로만 2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유럽과 태극전사'의 가세로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홍명보 호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도 보여준 환관 승부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19분 도마고 이비다(다이냐모 키예프)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 25분 니콜라 칼리니치(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에게 헤딩 결승골을 허용한 뒤 후반 추가 시간에 이근호(상주)가 헤딩으로 추격 골을 넣었지만 끝내 1-2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2월 영국 런던에서 치른 크로아티아 평가전에서 0-4로 패한 뒤 7개월 만에 다시 맞붙었지만 크로아티아의 수비벽을 뚫지 못한 채 2실점 하며 또다시 무너졌다.

이번 패배로 홍명보 호는 6일 아이티 평가전에서 맞은 미수결이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출범 이후 여섯 경기에서 1승 3무2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후반 중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집중력을 잃고 헤딩으로만 2골을 연속으로 헌납한 장면은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전반에 상대의 강한 압박을 뚫지 못해 패스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원톱 스트라이커의 활약 부재는 홍명보 호의 과제로 드러났다.

좌우 날개인 손흥민(레버쿠젠)-이창용(불턴) 조합이 개인기를 앞세운 돌파로 공격을 주도했지만 결정력이 떨어지며 효과를 높이지 못했다.

패스뿐 아니라 후반 중반부터 급격히 떨어진 집중력도 가다듬어야 한다.

후반 19분 헌납한 헤딩 선제골과 후반 25분 헤딩 결승골을 내주는 상황에서 모두 수비수가 자신의 마크맨을 놓친 결과였다.

홍명보 호는 출범 이후 6경기를 치렀지만 선발로 나선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은 게 단 한 번도 없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전반에 미드필더 공간을 많이 내주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에는 상대와 대등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달에 예정된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홍명보 호는 10월 12일 브라질(밤 8시·서울월드컵경기장), 15일 말리(밤 8시·천안종합운동장)와 잇달아 평가전을 펼친다. /연합뉴스